서산 마애불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

충남도의회, 7일 충남 백제 불교유적 등재 토론회

서산 삼존마애불 등 충남도 백제 불교문화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 지역에 분포된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 등 가야산 권역 백제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유산등재가 지자체의 실적처럼 오인되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통상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는 10년에서 30년까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국가와 지역의 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준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백제역사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임 보원사 사무장은 "백제시대 가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지역은 활발한 해상교역의 경제중심지"라며 "수준 높은 서민 문화가 발달한 만큼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 · 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충남도의회는 7월 7일 서산문화원에서 '충남지역 백제 불교유적 세계유산 등재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익살맞은 악귀상 만나봤나요

국립부여문화재硏, 익산 제석사 유적서 발견

툭 튀어나온 눈, 삐져나온 앞니, 마치 개구리 같이 생긴 익살스런 악귀상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전북 익산시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폐기유적 발굴조사 결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악귀상(惡鬼像) 등이 출토됐다"고 7월 12일 밝혔다.

현재 제석사지서 발굴 중인 폐기유적은 제석사(帝釋寺)에서 불에 탄 기와나 벽체 등 건축 부재와 사찰에 모셔진 소조 불상조각들을 버린 곳으로 남북 32.4m, 동서 28m 규모다.

이번 발굴에서는 악귀상(惡鬼像)을 비롯해 천부상(天部像), 나한상(羅漢像) 혹은 불제자(佛弟子)로 추정되는 2점 등이 출토됐다. 동그랗게 뜬 채 측면을 응시하고 있는 악귀상은 들창코와 치아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있으며, 눈동자에 유리질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 부분의 파편만 남아 있는 천부상에는 가는 눈매 · 길게 늘어진 도톰한 귓불 · 두툼한 턱이, 나머지 2점에는 감은 눈 · 두툼한 코 · 둥그스름한 정수리 등이 잘 표현돼 있다.



익산 제석사지 폐기 유적에서 발견된 악귀상. 익살스런 모습이다.

부여문화재연구소 측은 "형태나 문양, 제작기법 측면에서 중국 낙양 영령사(永寧寺),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일본 가와하라데라(川原寺) 출토품과 비교해 살펴볼 때, 제석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백제를 중심으로 중국 ·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교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나말여초, 고승·사찰은 지역 소통 창구"

한준수 교수, 한국중세사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신라가 패망하고 고려가 건국될 당시에는 지방 세력이 매우 강했다. 이런 지방 세력을 규합하고 안정화하는 데 고승과 사찰이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준수 가톨릭대 고려다원사회연구소 교수는 7월 1일 '관계와 소통: 고려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한국중세사학회 · 고려다원사회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나말여초에 금석문에 나타난 왕권과 승려와의 교류를 조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신라 하대에 이르러 왕위 다툼이 격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면서 지방세력이 부상했다. 지방세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사상 · 문화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있었고, 당시 불교의 주류인 선종 역시 지방세력에 기인했다.

신라가 패망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혼란을 수습하고 지방세력과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만

고려 태조, 승려와 교류 많아
주요사찰 주석하도록 유도해
지방 안정 도모… 역동성 가져

들어갔다. 태조의 불교 정책은 통합의 성격을 넘어서 다원적 정책을 내재하고 있었다.

한 교수는 "개경과 지방에 창건한 26개의 사원을 살펴보면 교종과 선종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종파와 교단의 공존과 균형을 추구한 다원적 종교정책의 성격이 엿보인다"면서 "태조의 승려 교류와 사원 창건은 사상적 균형을 이루려던 목적이 있었다. 이는 획일적 통합보다는 균형적 공존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태조는 자신과 교류했던 승려들은 지방의 주요 사원에 주석토록 했다. 이는 당시 고승 비문에 잘 나타난다. 법경대사의 비문에는 "임금의 교화를 돕고 마음을 받들어 인재를 등용하려는 계획을 받들었다"고 쓰여 있고, 원종대사의 비문에는 왕명으로 인해 주석한 사찰이 교통의 요충지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한 교수는 "보경대사가 임금의 교화를 도왔다는 것은 관념적 지지를 넘어 구체적 실해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인재 등용은 새로운 국가체재의 원동력으로 지방세력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며 "원종대사의 비문에서도 불교의 사찰이 고려시대 교통로 정비 · 숙박 · 교역 등을 담당한 '원(院)'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찰 간의 교류도 이러한 틀 속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교수는 "사찰과 스님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지방사회의 정서를 수렴하고 있었으며, 비록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통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또한 고승이 주석했던 사찰은 사상부터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방사회를 수렴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지방사회의 역동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라대종', 에밀레종 외관·소리 재현하다

성종사 · (사)범종학회
'복원적 재현' 대종 제작
6월 말 완성…2년 불사
치수 · 소리 1~2% 오차
10월 경주 이운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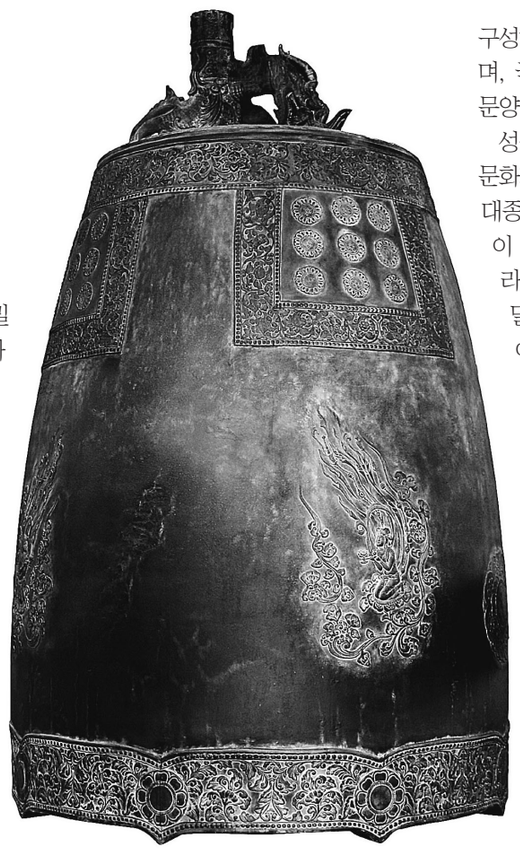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이 완벽에 가깝게 재현돼 화제다. 범종 전문 제작업체 성종사와 (사)범종학회는 "성덕대왕신종이 1,245년 만에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됐다"고 7월 12일 밝혔다.

'신라대종'으로 명명된 '성덕대왕신종'의 재현종은 지난 2003년 이후 타종을 중단한 성덕대왕신종의 소리를 다시 울리게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경주시가 성종사와 (사)범종학회에 제작을 의뢰한 종이다.

성종사는 2년여의 불사를 거쳐 '신라대종'을 지난 6월말 완성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경주시 관계자들이 성종사 진천 제작소를 찾아 울림식을 갖기도 했다.

이번 성덕대왕신종 재현 작업에서는 문양 복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공양좌상에 많은 공을 들였다. 성덕대왕신종은 세월의 풍파로 많은 부분이 마모돼 공양좌상의 얼굴 부위에는 눈 · 코 · 입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신라대종에서는 비슷한 연대에 제작된 석굴암의 불상을 참조해 눈 · 코 · 입을 살려냈으며, 이외에도 비천상의 손, 향로, 장신구, 보상화문의 표현, 잘려진 용뉴의 뿔까지 모두 여러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살려냈다.



성덕대왕신종을 그대로 재현해 낸 신라대종의 모습. 외연부터 소리까지 첨단기술로 성종사가 완벽에 가깝게 되살려냈다.

이를 위해 (사)범종학회에서는 문양, 주조, 음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철저한 고증과 감리를 실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양을 조각했다.

성종사 대표인 원광식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은 "이번에 제작된 신라대종은 성덕대왕신종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원적 재현'이라는 원칙아래 만들어졌다"면서 "에밀레종 본체의 문양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되, 제작 당시 기술부족으로 발생한 주조결함이나 마모된 부분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라대종은 실측 결과 성덕대왕신종과 1%의 오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음향에 있어서도 여음을 결정하는 1차 고유진동수가 성덕대왕신종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등 모든 영역대의 주파수가 성덕대왕신종과 유사했다.

신라대종의 음향분석을 담당한 김석현 강원대 교수는 "신라대종은 성덕대왕신종과 거의 동일하게 600Hz 범위에서 20여 개의 고유주파수 성분이 어울리면서 웅장한 타격음을 낸다. 주파수 성분들의 화음도는 신종의 화음도에 거의 일치할 정도로 높다"면서 "다시 주조해도 이정도로 유사한 크기와 소리를 가진 종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완성된 신라대종은 종각이 완성되는 오는 10월 경주로 이동돼 타종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수원 광교산 사지서 12세기 불교 유물 출토

수원박물관, 탑지 등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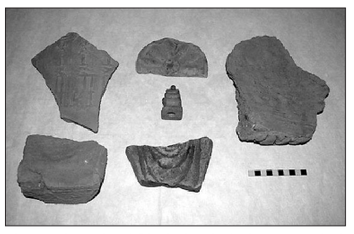
수원 광교산에서 12세기 중반 전후로 추정되는 종각터와 석탑지 등이 발견됐다.

수원시박물관사업소는 "지난 4월부터 광교산 사찰(현 수원 창성사, 구 법성사)부지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조성한 추정 종루(종각)터와 석탑지 등이 확인됐다"고 7월 7일 밝혔다.

조사대상지는 문화재 통합GIS 인트라넷시스템에 '수원 상광교동 사지(추정)'로 등록된 부지로 유적은 광교산남서쪽 능선사면부에 위치한 사찰 경내의 경작지와 주차장 부지 일부에서 발견됐다.

발굴조사결과 유구는 통일신라~고려시대 건물지 3동과 석탑지 1기 등이 확인됐다. 유물은 사천왕상의 팔부분이 부조된 석탑재를 비롯해 통일신라~고려시대 와전류(평기와 · 막새 · 전돌 · 나발 · 용두 · 치미 등), 소량의 고려시대 청자편 및 조선후기의 백자편이 출토됐다.

신성민 기자



수물 광교산 사찰에서 발견된 불교 관련 유구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7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